

『東醫寶鑑』의 『素問玄機原病式』 五運主病의 運用

慶熙大 韓醫大 醫史學教室 金南一

Use of 『So Mun Hyun Ki Won Byung Sik』 on 'O Un Ju Byung' in 『Dong Eui Bo Gam』

Kim Nam-il

Practical use of 『So Mun Hyun Ki Won Byung Sik』 on 'O Un Ju Byung' in 『Dong Eui Bo Gam』 has been analysed and is found that the author, Hur Jun of 『Dong Eui Bo Gam』, had applied 『So Mun Hyun Ki Won Byung Sik』 in explaining morphology of disease. Also, treatment and prescriptions were based on his personal opinion.

1. 서론

1610년 許浚의 14년간의 노력 끝에 완성된 『東醫寶鑑』은 여러가지 면에서 당시 동북 아시아의 최고 의서이다. 인용되어 있는 의서들로는 『內經』, 『難經』, 『傷寒論』 등 醫經들 뿐 아니라 脈經, 本草書, 方書, 綜合醫書 등과 內科, 外科, 婦人, 小兒, 鍼灸 등 제반 분과 의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모두 180여종에 달한다. 특히 당시까지의 의학에 큰 영향을 미친 金元四大家(劉完素, 張從正, 李杲, 朱震亨)의 醫說을 대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東醫寶鑑』에 운용된 劉完素¹⁾의 『素問玄機原病式』²⁾五運主病³⁾의 내

1) 劉完素(1120~1200)는 금나라시대의 의학자로 金元四大家의 한사람이다. 그는 運氣學을 중심으로

용을 비교, 분석하여 許浚의 의학관을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東醫寶鑑』이 단순히 ‘인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읽어낼 수 없는 허준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저작이라는 점을 보이는 것도 부수적인 목표의 하나이다.

2. 『原病式』 五運主病의 내용과 『東醫寶鑑』에 인용된 내용 비교⁴⁾

1) 諸風掉眩, 皆屬肝木

일명 病機十九條를 연구하여 질병이 熱性을 띠는 것에 착안하여 일명 六氣皆從火化說을 주장하였다. 그의 저술로는 『素問玄機原病式』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傷寒直格』 『傷寒標本心法類萃』 『宣明論方』 『三消論』 등이 있다.

2) 이하 『原病式』으로 간칭함.

3) 五運主病이란 『素問玄機原病式』에 보이는 “諸風掉眩, 皆屬肝木.”, “諸痛瘍瘡瘍, 皆屬心火.”, “諸濕腫滿, 皆屬脾土.”, “諸氣脹鬱病痿, 皆屬肺金.”, “諸寒收引, 皆屬腎水.”의 다섯 문장과 그 주석으로 구성된 내용을 말한다.

4) 아래 도표에서 괄호 안의 ↑는 원래 『原病式』의 내용으로 허준이 삭제한 내용이고, 괄호 안의 ↓는 허준이 삽입한 내용을 의미한다. 『原病式』의 부분에 밑줄 친 부분은 『東醫寶鑑』에 인용된 부분이고, 『東醫寶鑑』의 부분에 밑줄 친 부분은 『原病式』의 인용부분이다.

『原病式』 五運主病의 諸風掉眩, 皆屬肝木	掉, 搖也. 眩, 昏亂旋運也, 風主動故也. 所謂風氣(甚↑)(動↓), 而頭目眩運者, 由(肝↑)(風↓)木旺, 必是金衰不能制木, 而木復生火, 風火皆屬陽, 多爲兼化, 陽主乎動, 兩動相搏, 則(頭目↓)爲之(眩暈而↓)旋轉. (故↑)火本動也, 焰得風則自(然↑)旋轉. 如春分至小滿, 爲二之氣, 乃君火之位. 自大寒至春分七十三日, 爲初之氣, 乃風木之位, 故春分之後, 風火相搏, 則多起飄風, 俗謂之旋風是也, 四時皆有之. 由五運六氣千變萬化, 衝蕩擊搏, 推之無窮, 安得失時而便謂之無也. 但有微甚而已. 人或乘車(躍馬, 登舟↑)(及作↓)環舞而眩(運↑)(暈↓)者, 其動不正, 而左右(行↑)(紆↓)曲, 故經曰, 曲直動搖, 風之用也. 眩(運↑)(暈↓)而嘔吐者, 風熱甚故也.
『東醫寶鑑』 · 外形 · 頭 』의 眩暈	上虛則眩又曰上氣不足目爲之眩(此言虛而眩暈)○藏府筋骨血氣之精與脈并爲目系上屬於腦後出於項中故邪中於項因逢其身之虛其入深則隨眼系以入於腦入於腦則腦轉腦轉則引目系急目系急則目眩以轉矣(此言風入而眩暈)<靈樞>○內經曰頭痛巔疾下虛上實過在足少陰巨陽甚則入腎○徇蒙招尤目眩耳聾下實上虛過在足少陽厥陰甚則入肝○下虛者腎虛也腎虛則頭痛上虛者肝虛也肝虛則頭暈徇蒙者如以物蒙其首招搖不定目眩耳聾皆暈之狀也肝厥頭暈腎厥巔痛不同如此<綱目>○內經曰諸風掉眩皆屬於肝河間曰掉搖也眩昏亂旋運也風主動故也所謂風氣動而頭目眩運者由風木旺必是金衰不能制木而木復生火風火皆屬陽多爲兼化陽主乎動兩動相搏則頭目爲之眩暈而旋轉矣火本動也焰得風則自旋轉人或乘舟車及作環舞而眩暈者其動不止而左右紆曲故經曰曲直動搖風之用也眩暈而嘔吐者風熱甚故也○眩暈或云眩冒眩言其黑暈言其轉冒言其昏其義一也<入門>○眩暈者中風之漸也肥白人四君子湯(方見氣門)倍蜜灸黃芪加半夏陳皮少加川芎荊芥以清頭目黑瘦人二陳湯(方見痰飲)合四物湯(方見血門)加片芩薄荷入竹瀝薑汁童便服<正傳>○眩暈皆稱爲上盛下虛蓋虛者氣與血也實者痰涎風火也<醫鑑>○眩暈者痰因火動也蓋無痰不能作眩雖因風者亦必有痰<丹心>○痰在上火在下火炎上而動其痰二陳湯加酒芩梔子黃連蒼朮羌活<丹心>○眩暈有風有熱有痰有氣有虛有濕

丑 1

2) 諸痛瘍瘡瘍, 皆屬心火.

<p>『原病式』 五運主病의 諸痛瘍瘡瘍 ，皆屬心火.</p>	<p>人近火氣者，微熱則痒，熱甚則痛，附近則灼而爲瘡，皆火之用也。或痒痛如鍼輕刺者，猶飛迸火星灼之然也。痒者，美疾也，故火旺於夏，而萬物蕃(鮮榮↑)美也。灸之以火，漬之以湯，而痒轉甚者，微熱之所使也。因而痒去者，熱令皮膚縱緩，腠理開通，陽氣得泄，熱散而去故也。或夏熱皮膚痒，而以冷水沃之不去者，寒能收斂，腠理閉密，陽氣鬱結，不能散越，怫熱內作故也。痒得爬而解者，爬爲火化，微則亦能(令↑)痒，甚則痒去者，(爬↑)(謂↓)令皮膚辛辣，而屬金化，辛能散(火↓)，故金化見則火(力分而↑)(化↓)解矣。或云痛爲實，痒爲虛(者↑)，非謂虛爲寒也，正謂熱之微甚也。(或疑↑)瘡瘍皆屬火熱，而反腐(爛↑)出膿水者，(何也↑)。猶穀肉果菜，(至於↑)熱極(則↑)腐爛而潰爲污水也。潰而腐爛(者↑)，水之化也。所謂五行之理，過極則勝己者反來制之，故火熱過極，則反兼於水化。又如鹽能固物，令不腐爛者，鹹寒水化，制其火熱，使不過極，故得久固也。萬物皆然。</p>
<p>『東醫寶鑑 ·外形·皮』 의 痒痛</p>	<p>痒痛生於皮毛○內經曰諸痒爲虛血不榮肌腠所以痒也當以滋補藥以養陰血和肌潤痒自不作<丹心>○痒得爬而解者爬爲火化微則亦能痒甚則痒去者謂令皮膚辛辣而屬金化辛能散火故金化見則火化解矣<河間>○人近火氣者微熱則痒熱甚則痛附近則灼而爲瘡皆火之用也痒者美疾也故火旺於夏而萬物蕃美也或云痛爲實痒爲虛非謂虛爲寒也正謂熱之微甚也<河間>○諸痛皆屬於火<內經>○皮膚痛屬心實內經曰夏脈者心也夏脈太過則病身熱膚痛爲浸淫<綱目>○身上虛痒四物湯加黃芩煎水調浮萍末服之<丹心>○身痒如虫行此血虛也大料四物湯服之兼用澡洗藥<丹心>○飲酒後遍身痒如風瘡搔至血出宜服蟬蛻散<入門></p>
<p>『東醫寶鑑 ·雜病·癰疽』 의 癰疽辨膿有無及淺深</p>	<p>諸癰疽欲知有膿無膿以手掩腫上熱者爲有膿不熱者爲無膿<仲景>○按而後痛者其膿深小按即痛者其膿淺按之軟而即復者有膿按之強而不復者無膿<得效>○按之堅硬未有膿也按之半軟半硬已有膿也宜急破之半軟謂中央膿處半硬謂四方腫肉<精要>○用手按之熱則有膿不熱則無膿重按乃痛膿之深也輕按即痛膿之淺也按之不甚痛者未成膿也按之即復者有膿也按之不復者無膿也非也必是水也<入門>○以手掩上大熱者膿成自軟也若其上薄皮剝起者膿淺也其腫不甚熱者膿未成也若患瘰癧結核寒熱發渴經久不消者其人面色萎黃被熱上蒸已成膿也<入門>○血熱肉敗榮衛不行必將爲膿<內經>○瘡瘍皆爲火熱而反腐出膿水者猶穀肉果菜熱極腐爛而潰爲污水也潰而腐爛水之化也熱勝血則爲膿也<河間>○腫硬膿稠者爲實腫軟膿稀者爲虛敗膿不去加白芷不可用白朮蓋白朮能生膿故也<醫鑑></p>

표 2

3) 諸濕腫滿，皆屬脾土

“諸濕腫滿，皆屬脾土”라는 문장의 인용은 『東醫寶鑑·雜病·浮腫』의 “浮腫之因”에 나온다.

4) 諸氣脹鬱病痿，皆屬肺金

『原病式』 五運主病의 諸氣臏鬱病 痿, 皆屬肺金	臏, 謂臏滿也. 鬱, 謂奔迫也. 痿, 謂手足痿弱無力以運動也. (大抵肺主氣, 氣爲陽, 陽主輕清而升, 故肺居上部, 病則其氣臏滿奔迫不能上升. 至於手足痿弱不能收持↑), 由肺金本燥, 燥之爲病, 血(液↑)衰(少↑), 不能營養百骸故也. 故經曰, 手指得血而能攝, 掌得血而能握, 足得血而能步. ↑)(手足痿弱不能運動↓) (故↑)(猶↓)秋金旺則(霧氣蒙鬱, 而↑)草木萎落, 病之象也. (萎↑)(痿↓), 猶(痿↑)(萎↓)也.
『東醫寶鑑』 · 外形 · 足 』의 痿病之 因	內經曰肺者藏之長也爲心之蓋也有所失亡所求不得則發肺鳴鳴則肺熱葉焦故曰五藏因肺熱肺焦發爲痿躄此之謂也○陽明者五藏六府之海主潤宗筋宗筋主束骨而利機關也陽明虛則宗筋縱帶脉不引故足痿不用也<內經>○心氣熱爲脉痿則脛縱而不任地肝氣熱爲筋痿則筋急而攣脾氣熱爲肉痿則胃乾而渴肌肉不仁腎氣熱爲骨痿則腰脊不舉骨枯而髓減<內經>○痿謂手足痿弱無力以運動也由肺金本燥燥之爲病血衰不能榮養百骸故手足痿弱不能運動猶秋金旺則草木萎落病之象也痿猶萎也<河間>○痿之作也皆五月六月七月之時午者少陰君火之位未者濕土庚金伏火之地申者少陽相火之分故病痿之人其脉浮大<子和>

표 3

5) 諸寒收引, 皆屬腎水

이 문장은 『東醫寶鑑』 어디에도 인용되어 있지 않고, 주석인 “收斂引急, 寒之用也. 故冬寒則拘縮矣.”도 어디에도 없다.

3. 『東醫寶鑑』의 『原病式』五運主病의 運用

1) 眩暈

『東醫寶鑑』에서는 眩暈의 原因을 上虛 즉 上氣不足으로 보고 있다. 이어서 上氣不足으로 인하여 虛한 틈을 타서 邪氣가 目系에 침범하여 目眩以轉하는 것을 眩暈이 되는 기전으로 설명한다. 頭의 질환을 腎虛와 肝虛의 두가지로 나누어 腎虛는 下虛로 頭痛이 나타나고, 肝虛에 上虛로 頭暈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東醫寶鑑』에서 眩暈을 肝虛로 인한 肝厥로 보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다음에 바로 『原病式』의 내용이 삽입되어 眩暈의 기전을 설명하는데에 활용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原病式』부분의 둘째 줄에 있는 ‘肝’을 ‘風’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眩暈을 肝虛라고 본 것과 상호 연계될 수 있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原病式』의 다음 다섯 줄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運氣의 설명들이다. 『東醫寶鑑』에서는 이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수레를 땀 때 어지러움 증을 느끼는 것을 예로 들어 眩暈의 기전을 설명한 부분은 살리고 있다. 이것은 변화한 運氣論의 설명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을 예로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眩暈을 中風으로 점차 진행되는 증상으로 보고 肥白人과 黑瘦人으로 나누어 치료원칙도 肥白人是 四君子湯에 蜜炙黃芪를 倍加하고 半夏, 陳皮를 加하고 川芎, 荊芥를 약간 加하며, 黑瘦人은 二陳湯에 四物湯을 合方하고 片芩, 薄荷를 加하고 竹瀝, 薑汁, 童便을 집어넣어 복용하는 것으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肥白人和 黑瘦人の 구별을 치료의 관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뒤에 『東醫寶鑑』의 결론이 나온다. “無痰不能作眩”이 바로 그것이다. 『東醫寶鑑』에서는 말미에 眩暈의 원인을 “痰在上火在下”한 상황에서 아래의 火가 炎上하여 痰因火動하게 되므로 생기는 것이라 하고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原病式』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래에 있는 火의 움직임의 기전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 痒痛

표 2에서 보듯이 『東醫寶鑑』에서는 痒痛의 원인을 血虛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原病式』의 내용을 인용하여, 굽으면 痒의 증상이 잠시동안 사라지는 이유와 痛과 痒이 熱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 같린다고 보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여기에서 본래 『原病式』에서 앞에 있던 문장(痛과 痒은 熱의 정도에 따라 같린다는 견해)은 뒤로 가고, 굽었을 때 痒이 잠시 사라지는 이유를 설명한 뒤쪽의 문장이 앞으로 나갔다. 이것은 아마도 허준이 앞에 기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원인에 대한 결론을 짓는 형식으로 내용을 정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뒤의 치료법에서는 痛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痒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四物湯의 加減方을 제시한 것이 그것이다.

3) 癰疽辨膿有無及淺深

『東醫寶鑑·雜病·癰疽』 “癰疽辨膿有無及淺深”의 앞부분은 癰疽의 膿이 잡혔나 잡히지 않았나와 淺深을 살피는 법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癰疽의 원인은 火熱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火熱이 원인이라면 膿水라는 다분히 陰的인 것이 생겨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는 골치거리가 아닐 수 없다. 『東醫寶鑑』에서는 『原病式』의 설명을 활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 있다. 穀肉果菜가 熱을 받아 썩으면 汚水를 토해내는 것에 비유한 설명이 그것이다. 그런데, 『東醫寶鑑』에서는 『原病式』의 다음 부분에 나오는 穀肉果菜가 汚水를 토해내는 원리로 제시한 “過極則勝己者反來制之”라는 五行之理를 바탕으로 하는 설명을 삭제하고 있다. 이것은 실증적 입장에서 醫論을 전개해내려는 許浚의 醫學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 痿病之因

『東醫寶鑑·外形·足』의 “痿病之因”에는痿病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黃帝內經·素問·痿論』에 나오는 문장을 끌어내어 세 조각으로 설명을 달고 그 뒤에 『原病式』의 내용을 활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肺金本燥, 燥之爲病, 血衰不能營養百骸”이다. 이러한 내용은 “痿病之因”의 다음에 나오는 “痿病治法”의 치료원칙에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뒤에 나오는 加味四斤元, 五獸三匱丸, 鹿角膠丸, 養血壯筋健步丸, 神龜滋陰丸, 二妙丸, 加味二妙丸, 加味四物湯, 滋血養筋湯, 健步丸, 四製蒼栢丸, 清燥湯 등은 肝腎不足, 濕熱, 氣血兩虛 등으로 갈리지만 그 근본원인은 『原病式』에서 제시하는 “肺金本燥, 燥之爲病, 血衰不能營養百骸”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

5) 浮腫之因

『東醫寶鑑·雜病·浮腫』의 “浮腫之因”에는 “諸濕腫滿, 皆屬脾土”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 문장은 『黃帝內經·素問·至眞要大論』에 나오는 “諸濕腫滿, 皆屬於脾”라는 문장과 다른 것이다. 즉 『東醫寶鑑』에서는 이 문장을 『黃帝內經·素問·至眞要大論』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原病式』에서 인용한 것임을 보여준다.

4. 結論

① 『原病式』五運主病 중 “諸風掉眩, 皆屬肝木”의 주석 내용은 『東醫寶鑑·外形·頭』의 “眩暈”에 나온다. 『東醫寶鑑』에서는 眩暈의 원인을 痰在上火在下한 상황에서 아래의 火가 炎上하여 痰因火動하게 되므로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 『原病式』의 내용을 아래에 있는 火의 움직임의 기전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② 『原病式』의 “諸痛痒瘡瘍, 皆屬心火”의 주석 내용은 『東醫寶鑑·外形·皮』의 “痒痛”과 『東醫寶鑑·雜病·癰疽』의 “癰疽辨膿有無及淺深”에 보인다. 『東醫寶鑑』에서는 痒痛의 원인을 血虛로 微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 『原病式』의 내용을 인용하여 痒痛의 원인과 굼었을 때 痒이 잠시동안 멈추는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 “癰疽辨膿有無及淺深”에서는 瘡瘍이 생겼을 때 膿水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原病式』의 주석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許浚이 직접 끝부분에 “熱勝血則爲膿也”라는 말을 집어 넣어 결론짓고 있다.

③ 『原病式』의 “諸濕腫滿, 皆屬脾土”의 주석 내용은 『東醫寶鑑』의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東醫寶鑑·雜病·浮腫』의 “浮腫之因”에 뒤에 출처를 『內經』으로 붙여 놓은 “諸濕腫滿, 皆屬脾土”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內經·至眞要大論』의 문장과 다르므로 『內經』에서 직접인용한 것이 아니라 『原病式』에서 인용한 것이 분명한 문장이다.

④ 『原病式』의 “諸氣臏鬱病痿, 皆屬肺金”의 주석 내용은 『東醫寶鑑·外形·足』의 “痿病之因”에 나온다. 『東醫寶鑑』에서는 빈쇄한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고 이 내용을 “痿病治法”과 연결시키고 있다.

⑤ 『原病式』의 “諸寒收引, 皆屬腎水”와 주석 내용 모두는 『東醫寶鑑』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참고문헌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7.

신동원 외,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들녘, 서울, 1999.

『金元四大家醫學全書』上,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9.